

# 디스플레이

## 그래도 재고는 털어냈다

2013. 6. 18

디스플레이  
Analyst 전병기  
02.3779-8425  
bkjeon@etrade.co.kr

중국 보조금 정책 종료된 5월, LCD TV 패널 재고 부담은 해소

풍족했던 가을, 겨울을 지나 4~5월의 배고픈 보릿고개를 버티게 해주었던 관가의 해민정책이 종료되었다. 풍족한 가을이 오기 전에 배급을 끊은 관가가 야속하지만 관가에게 받은 혜택을 헤아려 보고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닐까?

### 중국의 보조금 정책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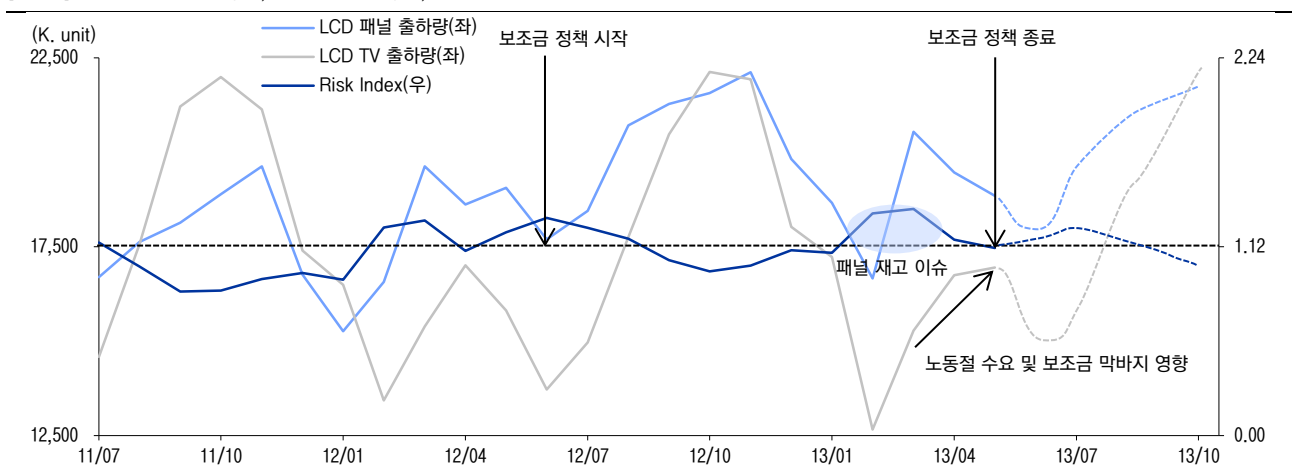
예전 중국의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이었던 가전하향(家電下鄉), 이구환신(以舊換新)에 이어 해민공정(惠民工程; 에너지절약 보조금 지원정책) 정책도 지난 달로 종료되었다. TV 최대시장인 중국의 정책은 전체 패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민공정이 종료되면서 LCD TV 구매시 지원되던 보조금이 끊기게 되었고, 패널업체와 세트업체의 수혜도 동시에 끝나버렸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노동절 연휴와 보조금 정책 종료 영향이 가득했던 5월의 LCD TV 출하량과 LCD 패널 출하량 데이터를 살펴 보아야 한다.

### TV 패널 재고 소진과 6, 7월 수요공백 그리고 기대되는 가을

올해 상반기 내내 존재했던 LCD 패널 재고 이슈는 패널업체들의 불안요인이었다. 패널업체 또는 세트업체가 가진 재고, 유통망에 깔린 재고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쌓여져 있던 것이다. [그림1]의 Risk Index는 '패널 출하량/세트 출하량'으로 정의한 지수로 패널의 공급과잉 수준 또는 재고 수준을 의미한다. 1분기의 과도한 재고는 5월의 노동절 연휴 수요와 중국의 보조금 정책 막바지 효과로 인해 적정수준(Risk Index 1.12는 지난 2년간의 평균수치)까지 떨어졌다. TV패널 수요가 5월로 앞당겨진 만큼 6, 7월의 수요공백은 마주할 수 밖에 없지만, 아픈 이는 뽑아낸 것이다.

올해 가을에 패널업체에 풍년이 들어 온 마을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눈은 풍작이고 어떤 눈은 흉작이어서 집집마다 울고 웃을지 가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논만 가지고 있는 집보다는 몇 그루의 사과나무까지 가지고 있는 집이 더 풍족할 것이다.

[그림1] LCD 패널 출하량, LCD TV 출하량, Risk Index 추이



자료: DisplayBank,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기)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